

터키의 언어 정책

S.Goksel Turkozu(괴셀 튀르코주)

터키 국립에르지예스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동양어학부장

1. 머리말

터키는 서남아시아의アナ톨리아에서 발칸반도의 동부 트라키아에 걸친 나라이다. 수도는 앙카라이며, 공용어는 터키어이다. 국교는 없으나 국민의 절대다수가 이슬람교를 신봉한다.

터키는 여덟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북서쪽으로는 불가리아, 서쪽으로는 그리스, 북동쪽으로는 조지아, 동쪽으로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월정지인 나히체반 자치 공화국), 이란, 남동쪽으로는 이라크와 시리아가 있으며, 터키의 북쪽에는 흑해가 있다.アナ톨리아와 동부 트라키아 사이에는 마르마라해와 다르다넬스 해협, 보스포루스 해협이 있는데, 이 바다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로 여겨진다. 이렇게 터키는 두 대륙에 걸친 나라로서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원래 아시아는 터키 영토의 대부분인アナ톨리아반도를 가리키는 개념이었다가 점점 확장되었다. 인종상 터키인이 국민 대다수를 이루며, 그다음으로는 쿠르드인이 있다. 인구는 8천만으로 중동의 인구 대국 중 하나이다. 유럽 기준으로 봐도 독일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다.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는 이스탄불(Istanbul)이다. 오스만 제국 시절의 수도는 이스탄불이었지만 터키 공화국 성립 이후

앙카라로 이전되었다.

터키는 オス만 제국의 후계 국가이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オス만 제국이 무너지고 1923년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의 지도로 민주주의, 세속주의를 받아들인 입헌 공화국이 세워졌다.

2. 터키어에 대하여

터키어는 알타이어 계통 언어의 하나이다. 터키어는 대부분 현재의アナトリア반도 내의 터키 영토에 국한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서기 10세기 전후에 서쪽으로 이동을 시작한 터키 민족은 오늘날의 터키에 이르기까지 수 세기에 걸친 흥망성쇠를 통해 주변 지역에 터키어를 사용하는 인구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급기야 동서양과 아프리카를 아우르는 거대한 영토를 가졌던 オス만 제국 시절에는 그 절정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터키어는 모든 터키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를 포함해 여타 지역과 국가에서 사용되는 방언화된 터키어까지 포함한다 하겠다.

オス만 제국이 사라지면서 당시의 オス만어는 이후 크게 터키어와 아제르바이잔어, 그리고 가가우즈어로 분화되었으며 1923년 터키 공화국 탄생을 기점으로 터키인이 사용하는 언어를 터키 민족의 현대사를 통해 재구성하여 특화한 언어라 할 수 있다. 결국 현대 터키어는 20세기 초에 그 형태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터키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터키 내의 7천5백만 명과 인접국인 불가리아,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벌칸반도에 약 3백만 명, 중동과 북키프로스, 그리고 남부 러시아에 약 3백만 명이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기타 주변국에 약 100만 명이 있다. 특히 단일 국가로는 독일이 3백만

명으로 가장 많으며 미국에 50만 명, 그리고 호주에 약 35만 명이 있다.

3. 오스만 제국 시대의 언어 정책

오스만 제국 시대의 공용어는 터키어였지만 오스만 제국 지배하에 있던 나라 내에서는 다문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다문화 정책에도 여러 종류가 있듯이 언어 정책은 다른 분야의 정책과 함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오스만 제국 시대에 시행된 어문 정책과 소련 시대에 시행된 다국어 정책은 서로 완전히 달랐다. 러시아인들은 다국어를 이념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 러시아어는 사회적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영역에서도 사용되었으며 터키 방언을 사용하던 지역에서는 이로 인해 심각한 모국어의 상실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オス만 제국의 공용어는 처음부터 터키어였다. 그러나 메드레세 (Medrese)¹⁾ 교육을 받고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를 아는 정치인들과 그들의 속기사들이 예술적 재능과 능력을 보여 주려고 공식 문서에 아랍어와 페르시아어 단어를 쓰면서 터키어의 통용을 어렵게 만들었다. 처음으로 셀림 3세가 문학에 있는 민족 언어의 단어를 고전 문학에서 써야 한다는 의견을 지지하였으며 ‘간단한 터키어(Türkî-i Basit)²⁾ 운동에 감명을 받으면서 터키어를 간소화하기 위해 첫발을 내디딘 술탄이 되었다.

마흐무드 2세는 의학 교육에 쓰이는 터키어뿐만 아니라 일반 오스만 터키어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소화되기를 원하였다. 의학 용어를 터키어로 변환하는 것에서 시작된 국민 감성은 민족주의 이념을 발전시키고 20세기 초 민족주의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면서 존속해 왔음을

1) 이슬람교 고등 교육 신학교를 뜻한다.

2) 15세기와 16세기에 터키 고전 문학에 아랍어와 페르시아어 단어들이 많아서 그 당시 작가와 시인들이 터키어를 간소화하기 위해 시작되었던 운동이다.

알 수 있다.

オス만 제국의 언어 문제는 마흐무드 2세 시대 이후 압둘하미드 2세 시대에 가장 진지하게 다루어졌다. 첫 입헌주의 시대, 1876년에 통과된 오스만 제국 기본법(Kanun-i Esasi)은 터키의 첫 번째 의회(Heyet-i Mebusan)에서 뜨거운 문제로 떠올랐다.

オス만 제국 기본법의 제18조에 국가의 공용어는 터키어라고 명시되면서 공무원의 자격 조건에 터키어를 알아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또한 국회 의원이 되기 위해서도 터키어 능력이 요구되었다.

4. 공화국 시대의 문자 개혁

지야 거크 알프(Ziya Gök alp)는 공화국 시대 글자 개혁에 나선 사람들 중 한 사람이다. 거크 알프는 종교 통합의 힘을 이용하고자 코란(Kuran)을 터키어로 번역해 기도 언어를 터키어로 변환하려 했다. 1923년에 출판된 『터키풍의 원리(Türkçülüğün Esasları)』에 따르면 거크 알프는, 종교 본질을 인식하기 위해 나마즈(Namaz)³⁾를 한 뒤에 읽는 성가와 기도를 터키어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국 시대 글자 개혁은, 한편으로는 서양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뿐리 깊은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통일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형태를 갖추었다. ‘케말리스트(Kemalist) 민족주의’⁴⁾는 어문 정책 관점에서 재정적 계획을 가장 강조하였다. 민족 정체성 사이에 구성된 유사성은, 터키어가 널리 퍼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기초로 돌아가는 것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공화국 시대에 언어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서 다시 형성되었다. 이에 언어 개혁의 첫 단계인

3) 이슬람교에서 하루 5번 행하도록 규정된 예배를 뜻한다.

4)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Mustafa Kemal Atatürk)의 의견과 이념을 따르는 사조를 뜻한다.

문자 개혁은 큰 편의를 제공하였다.

일찍이 여러 나라의 문자를 차용하였던 터키는 1928년 또다시 외래 문자인 라틴 문자를 도입하는 과감한 문자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것은 세 가지의 시사점을 제시한다.⁵⁾

첫째, 터키어와 아랍어는 서로 조화될 수 없는 이질적인 언어라는 것이다. 1,000년 동안의 긴 차용 기간과 그 기간에 따른 익숙함에도 알타이어로서 모음 체계가 매우 발달한 터키어와 아랍어는 근본적으로 서로 조화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아랍어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가 없었다.

둘째, 터키 민족의 강한 민족 문화 보존력이다. 이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자문화의 소멸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다른 문화와는 달리 터키인들은 아랍어를 10세기 동안이나 차용하면서도 그들의 고유한 언어를 지켜 아랍어에 동화되지 않았다. 이는 터키인들이 여러 세기에 걸쳐 다양한 문화와 접촉하면서도 고유한 민족 문화를 지켜 왔음을 말해 준다.

셋째, 근대화 개혁 운동에 힘입은 서양화 의식과 민족 국가 건설을 가져온 민족주의의 영향이 매우 컸다. 젊은이들과 신진 세력들의 근대화 운동은 매우 활발히 진행되었고, 프랑스 혁명 이후 자유주의 사조의 영향은 아랍 문자 사용에 대한 재고 운동의 시작 시기와 일치한다.

1928년 이전에 터키어를 쓰기 위해 사용되었던 아랍 문자보다 로마자가 터키어의 특징을 더 명확하게 나타낸다는 점을 인정받고 ‘터키 문자’라는 이름으로 법률 제1353조로 인정되었다. 이전에 터키는 터키어의 풍부함과 방대함을 표현할 수 없는 아랍과 페르시아의 언어 규칙의 영향을 받았기에 읽고 쓰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 아랍 문자는 아랍어에 잘 어울렸지만 터키 언어를 포괄하기엔 부족하였다. 완벽하게 대체될 수 없었으며 말하는

5) 술탄 페라 아크프나르[Sultan Ferah Akpinar(1999)] 9~10장.

대로 쓰이지도, 쓰인 대로 읽히지도 않았다. 이후 글자 개혁으로 읽기와 쓰기가 더 수월해지고 널리 퍼지게 되면서 근대 교육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었다.

당시 서양 문명은 로마자의 글자 체계를 사용하고 있었다. 터키는 아랍과 동양 문명의 특징과 문화 구조로 구성된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터키와 서양 간에 곤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올바르게 서양의 과학과 기술을 받아들이고 관계를 증진하려면 서양에서 쓰이는 로마자를 써야 했다.

문자 개혁은 아타튀르크가 나서서 문화 혁신을 일으킨 큰 혁명이었다.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널리 영향을 미쳤으며 그 의의가 크다. 새로운 길을 열려는 사람들에게 시작점이 되었으며 그들에게 권력을 얻게 하였다. 이렇게 언어 간소화는 터키어화를 가속화했다. 또한 읽고 쓰는 것을 쉽게 만들면서 사람들의 독서량을 증가시켰다. 사실 글자 개혁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새로 시작될 문화 개혁의 기반을 구성했다는 것이며 터키 문화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었다. 언어 개혁은 근본적인 언어의 건전성을 증진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반면, 언어 표현이 쉬워졌다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오늘날의 터키 어학계는 공화국 초기와 같이 세 방향의 주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주장들은 모든 외래어를 추방할 것과 언어에 강제성을 도입하지 않을 것, 이미 터키어화한 외래어는 그대로 존속시킬 것 등의 주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순화 운동에서는 순수 터키어 학파와 정화 학파로 나뉘어 순수 터키어 어휘의 발굴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순수 터키어 학파는 순수한 터키 언어 어간에 순수 터키어의 어미를 붙여 새로운 어휘를 창안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정화 학파는 모든 외래어를 추방하고자 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다.

5. 터키 국립국어원 설립

터키 국립국어원(Türk Dil Kurumu)은 1932년 7월 12일에 ‘튀르크 텔리 텃키크 제미예티(Türk Dili Tetkik Cemiyeti)’란 이름으로 아타튀르크의 훈령으로 설립되었다. 튀르크 텔리 텃키크 제미예티의 목적은 ‘터키어의 미와 풍부함을 밝히고 세계 언어 중 가장 가치 있는 언어로 만들기’였다고 알려진다.

터키 국립국어원은 처음부터 두 주요 목표를 갖고 노력하였다.

1. 터키어에 대한 연구를 하며, 연구를 하게 하기
2. 터키어의 최근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하기

아타튀르크도 터키어에 관한 국내외 연구를 직접 조사하며, 그 당시의 과학자들에게 터키어에 대한 연구를 하게 하였다. 터키 국립국어원의 설립으로 근대 터키어 순화 운동이 시작되었다. 아타튀르크가 직접 나선 터키어 순화 운동은 1935년까지 계속되었다.

아타튀르크는 사망하기 전 재산을 터키 국립국어원과 터키 국립역사원에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남겼다. 이 두 국립 기관의 예산은 아타튀르크의 유산에서 마련되었다.

터키어의 근대 사전을 항상 최신 형태로 수정하는 터키 국립국어원은 2011년에 《터키어 사전》의 제11판을 출판하였다. 《터키어 사전》의 마지막 판에는 약 122,000개의 단어가 수록되어 있다. 철자 사전의 마지막 판은 2012년에 출판되었다. 초등학교 교과에 따라 선택된 11,630개의 단어가 수록된 《초등학교를 위한 터키어 사전》의 제5판이 출판되었다. 사전은 초등학교의 수업 내용과 초등학교 학생들이 쓰는 어휘들을 기초로 출간되었다. 초등학생을 위한 철자 사전은 ‘철자법’, ‘교과 색인’과 ‘총색인’을 포함하

면서 제6판이 출판되었다. 최근에는 1년에 과학 작품 30~40개를 출판업계에 전해 주는 터키 국립국어원이 3개의 간행물을 내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의 언어와 문학 주제 및 대부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쓰인 연구를 다른 터키 언어 잡지가 매월 발행된다. 여섯 달에 한 번 발행되는 터키 세계 언어와 문학잡지에서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과 타타르 사람 등 터키 공동체의 언어와 문학에 관한 연구들이 다루어진다. 《터키 언어 연구들의 연감-회보》(Türk Dili Araştırmaları Yıllığı-Belleten)는 과학 연구 내용을 다루며 1년에 한 번만 발행된다.

터키 국립국어원은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과학과 미술 용어, 방언 연구, 터키 사회와 문학 원문과 같이 광범위한 분야의 작품을 1,163개 정도 발행하면서 과학과 문학 세계에 알려졌다.

6. 터키의 모국어 교육

언어는 사회를 반영한다.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의 수준, 개발 수준과 사고방식을 보여준다. 언어는 끝없이 깊으며 인간의 심신으로 계속된다. 인간은 현재 살고 있는 삶을 반영하는 언어를 통해 신구의 감정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 언어는 과거와 현재, 이 두 감정을 통합시킨다.

모국어 교육은 다른 수업들과 비슷하게 목표, 내용, 방법과 평가 단계로 이루어진다. 각 단계마다 효과적이고 유익한 연구가 요구된다. 모국어 교육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되며 중고등학교까지 계속된다. 이렇게 꾸준히 학교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철자 오기와 같은 실수가 줄어들게 된다. 가족과 매체는 언어 교육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1983년 관보에 실린 ‘외국어 교육 및 훈련법’과 터키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어 교육 및 훈련이 국가 교육부 아래 시행되어야 한다고 제정되었

다. 그러나 언어의 단순화 및 모국어 교육 정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더라도, 모국어 교육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오늘날 다양한 외국어가 교과 과정으로 학교에 도입되고 있지만 터키어 교육은 충분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

터키에서는 2011년 「터키 언어 보호 및 개발을 위한 법률」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런 법안이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터키의 유럽 연합에 대한 이상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 법안의 일부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유치원에서는 외국어 교육을 할 수 없다.
- 터키어 이외의 언어는 초등 교육, 중등 교육 및 고등 교육에서 교육용 언어로 사용할 수 없다.
- 공공 기관 및 단체, 공공 법인 및 공증인의 모든 종류의 문서, 계약서 및 서신은 터키어로 규제된다.
- 터키에서 개최되는 모든 공식 회의 및 협상에서 터키를 대표할 사람들은 터키어로 말할 필요가 있다.
- 국가 신문, 잡지, 텔레비전 및 라디오 채널에서의 터키어 사용은 필수적이다.
- 전국 방송 라디오 및 텔레비전에 출연하는 진행자에게는 터키어를 정확하고 규칙적으로 발음할 수 있는 '능력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 전국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은 교육 방송, 홍보 방송 또는 국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오전 7시와 밤 12시 사이에 반드시 방영해야 한다.

7. 터키의 외국어 교육 정책

19세기에는 사람들의 회화 언어와 글쓰기 언어가 서로 달랐다. 아랍어와 페르시아어가 서면 언어에 끼친 영향은 상당했다. 특히 문자 언어로 쓰이는 터키어의 65퍼센트가 회화 언어의 영향을 받았다. 언어가 간소해지고, 회화 언어와 글쓰기 언어가 일치하기를 원했던 아타튀르크는 1932년 터키 언어 연구소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외국어 교육 및 교육에 관한 법률」 제2923호는 교육 훈련 기관에서

제공될 외국어 교육을 조직한다.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라 공립 및 사립 학교,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기관, 학교에서 관리될 외국어에 관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 터키 시민의 모국어인 터키어 이외의 언어는 가르치고 배울 수 없다.
- 초등 교육, 중등 교육 기관에서는 아타튀르크 원칙 및 개혁의 주제인 터키 혁명과 아타튀르크주의, 터키 언어 및 문학, 역사, 지리학, 사회학, 종교 문화 및 도덕 교육과정 및 기타 터키 문화 관련 수업은 터키어로 진행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교육 및 훈련 과정과 그와 관련된 연구는 다른 언어로는 진행될 수 없다.

8. 티아르티(TRT) 6의 탄생

터키가 유럽 연합 가입 후보 상태가 된 후로는 이전의 언어 정책이 시행되지 않기 시작했으며, 기초법을 포함한 법의 변화에 따른 규제가 만들어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와 방언의 사용’에 대한 방해와 억압이 사라졌다.

2009년 1월 1일에 티아르티(TRT) 국영 방송국은 하루 종일 쿠르드어로만 방송하는 티아르티 6(TRT SES) 채널을 열었고, 이로써 법으로 금지되었던 쿠르드어는 국가 방송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거듭났다. 터키 공화국이 진립되었을 때부터 채택되었던 ‘국가’ 개념과 ‘언어 정책’이 대조를 이루던 이 상황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규정 제5조: 라디오 기관은 이러한 언어와 방언의 교육을 위해 전통 문화 및 언어 뉴스, 음악 및 전통 문화를 방송할 수 없으며 방송 기관에서 사용하는 방언은 일주일에 총 45분을 초과하지 않으며 하루 총 4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방송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2009년 1월 1일 티아르티(TRT)가 이 규정의 조항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자막 없이 하루 종일 쿠르드어 방송을 방영하는 채널(TRT 6)의 설립으로 약화되었다.

유럽 연합 이상에 의해 형성된 언어 정책은 처음부터 계속되어 온 터키의 ‘민족주의’와 ‘공식적인 단일 언어주의’를 심각하게 봉괴시켰다.

9. 맷음말

터키에서는 언어의 개혁, 정리, 개선, 보급 등 국민의 언어생활 전반에 대해 평가는 언어 정책이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터키 공화국의 언어 정책은 터키 공화국의 건국 주체인 민족주의 세력의 정신적 기조인 민족주의, 공화주의,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터키 민족은 자신의 문화인 터키 문화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민족 문화의 중요한 요소인 언어 보호와 정화 정책을 펼쳤다. 이런 이유로 터키는 오랜 이슬람의 영향에도 그동안 지켜왔던 구어체인 터키어를 기초로 순수성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으며 라틴 문자를 과감히 수용함으로써 민족 문화의 새로운 기틀을 닦았다. 그러나 여전히 차용 문자인 라틴 문자가 고유 문자가 아니어서 나타나는 음운 표기상의 문제나, 많은 외래어의 문제, 유럽 언어의 영향이 과도하다는 문제, 또한 무엇보다 보수파와 개혁파 사이의 마찰 문제는 앞으로 터키의 언어 정책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터키는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민족이 같이 살았다. 그래서 터키어 외에 터키에서 사용되는 여러 언어가 있다. 다른 종교를 가진 민족도 있고 이슬람교를 믿는 민족들도 있다. 터키 공화국이 설립된 이후로 타 종교인들을 소수 민족으로 분리하고 있다. 터키에서 살고 있는 민족 집단들은 모두 다 터키 국적을 갖고 있고 터키어로 교육을 받아 왔다. 최근 터키에서

는 이런 민족 집단들의 모국어 교육을 위해 여러 개혁을 하고 있다.

터키어는 국가를 상징하는 ‘우리’의 주권과 독립을 상징하는 통합 요소이다. 터키어의 정확하고 올바른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튀르크 민족이 국민 의식을 갖고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법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터키인들은 터키 민족의 소외나 퇴보와 같은 위험을 인지하고 모국어를 사용해야 한다.

대학교에서 학과 설립이나 사설 교육 기관에서 모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언어들에 대한 교육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21세기 터키 공화국의 언어 정책은 유럽 연합 이상 때문에 많이 바뀌었다고 하겠다. 공화국 초기에는 민족주의가 언어 정책을 형성하였지만 현재 언어 정책은 다종 언어 정책으로 변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 문헌

- Açık, Fatma(2014), “Dil Politikaları Bağlamında Türkçenin Öğretimi”, Çukurova Üniversitesi Dergisi.
- Çelebi, Mustafa Durmuş(2006), “Türkiye’de Anadil Eğitimi ve Yabancı Dil Öğretimi”, Erciyes Üniversitesi, Sosyal Bilimler Enstitüsü Dergisi Sayı: 21.
- Demirel, Özcan(2005), “Avrupa Konseyi Dil projesi ve Türkiye Uygulaması”, MEB Yayımlar Daire Başkanlığı <http://www.yayim.meb.gov.tr>
- Eurobarometer(2006), Ankara/(검색일: 2017. 9. 15.)
- Salihpaşaoglu, Yaşar(2007), “Türkiye’nin Dil Politikaları ve TRT 6”, Gazi Üniversitesi Hukuk Fakültesi Dergisi C. XI, Sa.1-2, 2007.
- Şimşek Tuğba(2014), Turkish As An Offical Language And Protection Of Correct Use Of The Language By Law,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Social Research Volume: 7 Issue: 29.
- 픽셀 튜르코주(2013), <계승 터키어 교육과 터키에서의 계승어 교육>, 이중 언어학회 제17차 국제학술회대회 -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재외동포와 계승어-, 한양대학교, 서울.
- 술탄 폐라 아크프나르(1999), 한국어와 터키어의 경어법에 대한 대조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http://www.tdk.gov.tr/>(검색일: 2017. 10. 2~3.)
- <http://www.egitimsim.gen.tr/tr/index.php/arsiv/21-30/sayi-28-egitim-politikasi-ekim-2010/846-dil-politikalari/>(검색일: 2017. 10. 5.)